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은총의 숲 센터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안내서

풍성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길

사순절 준비부터 부활절까지, 은총의 숲을 일구는 10주의 여정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목 차

초대의 글 / 2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주제 해설 / 3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안내서 사용 방법 / 6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요약 / 7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안내 / 8

참고 자료 / 13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은총의 숲

초대의 글

“사순절 기도와 금식으로 은총의 숲을 일굽시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 치유, 희망이란 의미를 갖고 푸른 뱀의 해를 출발합니다. 지혜롭게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망가진 지구 생태계를 치유하고 은총의 숲으로 지구를 살리기를 희망해 봅니다.

올해 1월 12일,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평균기온이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넘으면 지구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통제권이 무너지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은 이제 시간문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1월에 미국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LA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남극과 북극 지역의 해빙, 강력해지는 태풍과 홍수, 기근과 가뭄 등 기후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기후 이상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매년 봄이 되면 날아오는 황사는 유독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 건강을 위협합니다. 황사 속의 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온갖 질병을 양산합니다. 이에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2009년에 황사를 막고 몽골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했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니 다들 비웃더군요. 하지만 앞서 나무를 심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나무 심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몽골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은총의 숲’입니다. 15년이 된 몽골 은총의 숲은 제법 큰 숲이 되었습니다. 10만 평의 땅에 심어온 수만 그루의 나무는 2~5m의 크기로 자랐고, 새들이 찾아와 노래하는 숲이 되었습니다. 은총의 숲은 사막에 각종 나무를 심어 숲이 우거진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을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은총의 숲은 몽골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숲은 이제 지구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이 땅의 고통을 기억하며 경건한 맘으로 기도하는 사순절에 의미 있는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후단식, 탄소금식 입니다.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끼니씩 금식하고, 탄소헌금을 모아 나무를 심읍시다.

은총의 숲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숲이자, 바람과 황사를 막는 녹색 댐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인간에게 맡긴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창조 동산을 잘 돌보고 지켜낼 소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창조 세계를 잘 보전하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총의 숲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온 교회가 기후 위기를 직시하고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나서야 합니다. 은총의 숲 조성은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도와 금식으로 은총의 숲을 일굽시다.

2025년 2월 1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양재성 목사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주제 해설

풍성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길

- 사순절 준비부터 부활절까지, 은총의 숲을 일구는 10주의 여정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사순절의 역사와 의미 :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영적인 여정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40일 동안의 교회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1세기 사도 교회에서 부활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시간인 40시간 동안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진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이 준비의 시간은 월요일부터 부활절 주일 전까지의 6일 동안으로, 다시 1년 365일의 십일조로서 36일 동안으로 점차 확대되었는데, 8세기 무렵에는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금식과 성서에서 40이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맥락을 같이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40일 동안의 기간을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0일의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보내는가는 교회의 전통에 따른 차이가 생겼습니다. 개신교를 포함한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주일 전까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로 정하고, 6번의 주일을 사순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주일과 함께 토요일도 40일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순절 전 주일을 포함해서 7번의 주일을 사순절 기간의 주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순절 전 3주의 주일을 사순절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내기에 이 3주까지 사순절 시기로 포함하면 모두 10주의 주일을 사순절 주일로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의 차이로 인한 사순절 날짜의 차이, 금식 규정 등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사순절 전통에는 여러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모두 주일을 사순절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일은 어두움 가운데서 빛과 환희를 경험하는 ‘작은 부활절’,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교회의 전통에 따라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참회의 행동으로 금식, 단식, 고행 등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의 참회의 행동이 참된 영적인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금식, 단식, 고행 등은 단순한 종교적 규범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 속에서 사순절 기간은 ‘축복받은 날 가운데서도 가장 축복받은 날’, ‘축제 중의 축제’인 부활절 주일에 세례를 받기 위한 세례 예비자들의 몸과 마음의 준비 시간이었고, 세례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부활절 세례의 은총을 다시 경험하기 위한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사순절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영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도와 금식 : 풍성한 생명을 이루는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실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창조세계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도록 하셨습니다(창 1:29).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세계의 은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닌, 오로지 '빵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창조세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창조세계에서 얻는 빵, 그 자체가 아니라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풍성한 생명으로 향한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요 10:10).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온전한 해방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는 '돌로 만든 빵'(마 4:3)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지는 기도와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물질적인 풍요에 의존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영적인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 신앙인들은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는 생명의 떡'(요 6:35)을 맛보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metanoia)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롬 12:2). 때문에 사순절 기간의 기도와 금식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금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순절의 기도와 금식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해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풍성한 생명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실천입니다.

기후생태 위기와 기도와 금식 : 생태적 회심, 전환의 실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 모습 그대로 좋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메마른 산과 들은 불타오르고, 강과 바다의 생명들이 사라지고, 황폐해진 땅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땅의 황폐화라는 암울한 기후생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후생태 재난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과 생태계의 생명체들은 삶의 토대를 잃고 고통을 겪고 있으며,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과 지구 생태계는 희망을 포기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생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자리(창 2:15)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주인이 되고자(막 12:7) 하였기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때문에 기후생태위기 가운데 맞는 사순절의 기도와 금식은 신앙인의 공동체가 기후-생태 위기에 처해 황폐해진 창조세계를,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가꾸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생태적 회심, 전환'(metanoia)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과 함께, 황폐해진 땅을 복원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숲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취약해진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는 행동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오직 빵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사순절의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이루는 십자가의 여정

UN은 황폐해진 토지와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토지와 생태계의 복원은 땅과 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며,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를 저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입니다. 때문에 UN에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훼손된 토지와 생태계를 복원하여 '토지 황폐화 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y)을 이루는 '생태계 복원 10년 프로젝트'(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기후재난 국가 몽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사단법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의 '은총의 숲' 사업을 통해 숲 조성을 통한 토지와 생태계의 복원에 참여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자라지 않던 몽골 아르갈란트 지역의 은총의 숲 조성지 10만 평에는 15년이 지난 지금, 10여 종의 28,500여 그루의 나무와 수많은 종류의 풀들이 자라는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총의 숲에는 다양한 새들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깃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총의 숲은 나무를 심고, 나무 열매를 수확하여 가공하는 일을 통해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몽골의 유목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교회에서 은총의 숲을 위해 기도하며 탄소 헌금을 통한 은총의 숲 사업을 지속적으로 후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와 금식이 실제로 기후-생태 재난을 겪고 있는 몽골에 풍성한 생명을 이루는 은총의 숲을 조성한 것입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사단법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에서는 2025년부터 몽골의 숲 조성 사업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만년설의 해빙과 건조해진 기후로 인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다른 기후재난 국가 네팔에서도 은총의 숲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네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토지와 생태계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도 교회의 전통은 어려움에 처한 자매형제 교회를 돕는 일을 성도의 의무(롬 15:27)로 여겼습니다. 최근 유럽 교회는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현지의 교회를 통한 생태계 복원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북미 지역 교회는 중남미 지역의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불과 3,40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의 자매형제 교회들에서 영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기후-생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은총의 숲 조성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 그동안 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지고 있던 영적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2025년 사순절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진 모두에게 풍성한 생명을 이루는 십자가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이번 사순절의 기도와 금식이 은총의 숲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여 창조세계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회복되어 풍성한 생명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부활의 희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안내서 사용 방법

1. 교회력은 각각의 교회의 전통과 일정을 따르면 됩니다. 본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안내서'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생태 달력에 기재된 교회력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2025년 사순절은 3월 5일 재의 수요일에 시작되어 4월 19일 성 토요일까지로, 사순절 기간에 6주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본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안내서'에서는 사순절에 앞서 사순절을 준비하는 3주의 기간과 사순절을 맺고, 기쁨과 감사의 축제에 참여하는 부활절까지의 7주의 기간을 보내는 모두 10주 동안의 주일 성서 본문과 주제, 주중의 기도와 금식으로서의 실천 내용으로 녹색 순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녹색 순례 10주의 기간은 '초대, 잔치, 맺음, 새김'의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시간마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사순절을 앞둔 3주의 기간은 부활을 향한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며 순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초대의 시간'입니다.
- 사순절 기간은 녹색 순례의 여정에 함께하며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을 향한 작은 잔치에 참여하는 '잔치의 시간'입니다.
-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은 녹색 순례의 여정이 십자가의 길로 이어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주하는 '맺음의 시간'입니다.
- 부활절 주간은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녹색 순례에 참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새김의 시간'입니다.

4. 본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안내서'에 제시된 주일 성서 말씀은 '개정 공동 성서 정과'(The Revised Common Lectionary)의 'C년도'에 해당하는 본문이며, 주제는 본문과 녹색 순례의 내용에 맞추어 정하였습니다. 설교 시 본문과 주제는 교회의 목회 일정과 설교자의 재량에 따라 바꾸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5. 녹색 순례 기간 동안 수행하는 내용은 교인과 교회의 실천 주제를 구분하였습니다.

- 교인들의 실천 과제는 교회의 모임과 소통 공간을 통해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 교회의 실천 과제 역시 관련 부서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수행 여부를 교회의 모임과 소통 공간을 통해 공유하도록 합니다.

6. 고난주간을 제외한 사순절 5주 동안은 개인과 교회의 실천과 맞물려 '은총의 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후원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모든 은총의 숲 후원 캠페인에 참여하기보다는 교회와 단체에서 하나의 후원 캠페인을 정하여 함께 참여하고, 부활절에 공동체적인 참여 성과를 공유하실 것을 권합니다.

7. 녹색 순례의 마지막 2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 주일은 교회 공동체에서 준비하는 기도와 예배를 우선하여, 별도의 녹색 순례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일정 가운데 기도와 예배 순서 속에서 녹색 순례의 주제와 의미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요약

날짜 (교회력)	의미	성서 말씀	주제	녹색 순례 내용
2/16 (주현 후 6주)	**초대의 시간 :** 풍성한 생명으로 초대를 받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기	눅 6:27-36	사랑과 자비	녹색순례 준비 1주, **'초대의 주'** 풍성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길 안내
2/23 (주현 후 7주)		눅 6:38-42	용서와 나눔	녹색순례 준비 2주 **'생명 밥상의 주'** 교인 : 채식 위주의 식사하기 교회 : 도농 교회 간의 교류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나눔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3/2 (주현 후 마지막 주)		눅 9:28-36	영광과 변화	녹색순례 준비 3주, **'서로 나눔의 주'** 교인 : 오래된 옷을 새롭게 고쳐서 입기 교회 : 안 입는 옷을 서로 바꾸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나눔 옷장 마련하기
3/5 (재의 수요일)	**잔치의 시간 :**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온전히 머무는 시기			40일 간의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며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향한 기도
3/9 (사순절 1주)		눅 4:1-13	시험과 승리	녹색순례 1주, **'덜어내는 주'** 교인 : 물건 구입을 최소화하고, 목록을 만들어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기 교회 : 제로웨이스트 가게 방문하기 '제로웨이스트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 참여
3/16 (사순절 2주)		눅 9:28-36 (눅 9:37-43a)	치유와 회복	녹색순례 2주, **'공공교통 이용하는 주'** 교인 : 공공교통을 이용하기 교회 : 탄소배출량에 대한 탄소 헌금하기 '은총의 숲 천사(1004) 되기' 참여
3/23 (사순절 3주)		눅 13:1-9	회개와 심판	녹색순례 3주, **'에너지 전환의 주'** 교인 : 햇빛발전소 설치하기 교회 : 선교지에 햇빛발전소 후원하기 '은총의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3/30 (사순절 4주)		눅 15:1-3, 11b-32	참회와 기쁨	녹색순례 4주, **'생명 돌봄의 주'** 교인 : 텃밭과 화단 만들어 식물 가꾸기 교회 : 씨드볼을 만들어 심어보기 '네팔 은총의 숲 씨드볼 후원 키트' 참여
4/6 (사순절 5주)		요 12:1-8	경배와 기쁨	녹색순례 5주, **'생태 정의의 주'** 교인 : 생태 정의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교회 : 기후 생태 문제 담당 부서 만들기 '몽골 은총의 숲 6그루 나무 심기' 참여
4/13 (종려주일)	**맺음의 시간 :** 풍성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시기	눅 22:14 -23:56	참회와 동행	녹색순례 6주, **'풍성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주'**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도와 금식 가운데 고난 주간을 보내기
4/20 (부활절)	**새김의 시간 :** 풍성한 생명을 함께 나눔으로 은총을 깨닫는 시기	눅 24:1-12	기쁨과 감사	녹색순례 후 1주 **'기쁨과 감사 축제의 주'** 부활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 나누기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안내

1. 초대의 시간 : 2/16~3/4, 3주

풍성한 생명으로 초대받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기

2월 16일, 녹색 순례 준비 1주 '초대의 주'	
본 문	누가복음 6:27-36
주 제	사랑과 자비 – 교회력에서 사순절의 의미와 역사
녹색 순례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 풍성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참여를 권면합니다. •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교회 소통 공간에서 안내 웹자보를 공유합니다. • 포스터와 웹자보 파일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www.greenchrist.org), 은총의 숲 센터(www.graceforest.org)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23일, 녹색 순례 준비 2주 '생명 밥상의 주'	
분 문	누가복음 6:38-42
주 제	용서와 나눔 - 사순절 기간의 기도와 금식의 의미
녹색 순례	교인들에게는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권면합니다. 교회에서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간의 정기적인 교류와 건강한 먹거리 나눔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 교회 소통 공간에서 각자의 채식 식사 인증사진을 공유합니다. • 도농교회 교류와 관련해서는 생명망잇기운동(www.lifenet.kr), 교단생활협동조합, 교단농어촌선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일, 녹색 순례 준비 3주 '서로 나눔의 주'	
분 문	누가복음 9:28-36
주 제	영광과 변화 – 기후생태 위기와 생태적 회심의 필요성
녹색 순례	교인들에게는 오래된 옷을 버리지 말고 새롭게 고쳐서 입을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입는 옷을 서로 나누고 필요한 가져갈 수 있는 나눔 옷장을 설치합니다. • 해외로 수출되어 쌓여있는 옷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 교회 소통 공간에서 새롭게 고쳐 입은 옷의 인증사진을 공유합니다. • 나눔 옷장에 모인 옷은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가까운 초록가게, 아름다운가게, 새활용(upcycling)가게 등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2. 잔치의 시간 : 3/5~4/12, 5주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온전히 머무는 시기

3월 9일, 녹색 순례 1주 '덜어내는 주'	
본 문	누가복음 4:1-13
주 제	시험과 승리 – 오직 빵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녹색 순례	교인들에게는 한 주간 동안 물건의 구입을 최소화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는 꼭 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만들어 구입하도록 권면합니다. 교회에서는 가까운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함께 방문하고, 교회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가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 교회 소통 공간에서 한 주간 동안 구입한 물건의 목록을 공유합니다. • 제로웨이스트 가게 '알맹상점'(www.almang.net)에서 가까운 제로웨이스트 가게의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 가게의 사례를 안내받으시려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02-711-89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총의 숲 센터(www.graceforest.org)에서 제로웨이스트 가게 '나아지구'와 함께 '제로웨이스트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를 만들어 은총의 숲 생태기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은총의 숲의 '제로웨이스트 여행용 세면도구 후원 세트' 후원에 참여하시면, 30,000원의 후원금으로 은총의 숲에 1그루의 나무를 후원하고, 대나무 칫솔, 고체 치약, 샴푸바, 바디바 등이 천 파우치에 들어있는 '제로 웨이스트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16일, 녹색 순례 2주 '공공교통의 주'	
본 문	누가복음 9:28-36 (9:37-43a)
주 제	치유와 회복 – 창조세계의 악을 몰아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녹색 순례	교인들에게는 한 주간 동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공공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보고, 탄소 배출량에 대한 '탄소 헌금'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을 이야기 나눕니다. • 교회 소통 공간에서 공공교통을 이용한 인증사진을 공유합니다. •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www.kcen.kr)의 '탄소발자국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자동차 1대가 연간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약 2톤 정도이고, 현재 유럽의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은 탄소 1톤당 75유로 전후로, 약 110,000원 입니다. • 은총의 숲 센터(www.graceforest.org)에서는 은총의 숲 조성을 위해 정기 후원에 참여하는 1,004명의 후원자 '은총의 숲 천사'를 찾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의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탄소 헌금으로,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은총의 숲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3일, 녹색 순례 3주 '에너지 전환의 주'	
본 문	누가복음 13:1-9
주 제	회개와 심판 – 악을 물리치시고 창조세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녹색 순례	교인들에게는 가정과 사무실의 베란다, 옥상, 지붕, 주차장 등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에서는 해외 선교지에서 지역 공동체의 숲 복원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선교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교회 소통 공간에서 교인들이 설치한 햇빛발전소 인증사진을 공유합니다. •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가 가능한 300W급 햇빛발전소는 지자체에 따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햇빛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교단 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02-711-89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총의 숲 센터(www.graceforest.org)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현장에서 지역 공동체의 숲 복원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은총의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은 기금 조성에 참여한 개인, 단체, 교회, 기업의 이름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2025년 '은총의 에너지 프로젝트' 기금 조성 목표는 20,000,000원 입니다.
3월 30일, 녹색 순례 4주 '생명 돌봄의 주'	
본 문	누가복음 15:1-3, 11b-32
주 제	참회와 기쁨 –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의 잔치에 초대된 존재의 기쁨
녹색 순례	교인들에게는 텃밭이나 화단, 화분을 준비해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뿌려 식물을 가꿀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육 부서를 중심으로 직접 씨드볼(Seedball)을 만들어보고, 교회 주변에 공간을 마련해 씨드볼을 심어 식물이 자라도록 합니다. • 교회 소통 공간에서 모종과 씨앗을 심은 텃밭, 화단, 화분 인증사진을 공유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농부' 지원사업으로 텃밭과 반려식물 분양, 화분, 모종, 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물 재배 방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은총의 숲 센터(www.graceforest.org)에서는 네팔 은총의 숲에서 숲 조성에 사용하고 있는 나무 씨앗을 넣은 흙공, 씨드볼을 직접 만들어 보고, 네팔 은총의 숲을 후원하는 '네팔 은총의 숲 씨드볼 후원 키트'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 은총의 숲 씨드볼 후원 키트' 후원에 참여하시면, 10,000원의 후원금으로 네팔 은총의 숲에 씨드볼 100개를 후원하고, 씨드볼 4개를 만들 수 있는 흙, 씨앗, 토양 영양제, 보관 트레이, 기념 버튼 등의 씨드볼 재료가 들어있는 씨드볼 제작 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6일, 녹색 순례 5주 '생태 정의의 주'	
본 문	요한복음 12:1-8
주 제	경배와 기쁨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녹색 순례	교인들에게는 지구 생태계의 파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생태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에서는 생태 정의의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교회 소통 공간에서 기후-생태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는 뉴스와 자료를 공유합니다. • 일부 교단 총회, 본부에서는 기후-생태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 위원회, 운동본부 등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은총의 숲 센터(www.graceforest.org)에서는 '몽골 은총의 숲 6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존의 숲을 지키면서 6그루의 나무를 더 심는다면 기후-생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몽골 은총의 숲에서는 1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는데 20,0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매달 10,000원씩 1년, 120,000원의 후원금으로 '몽골 은총의 숲 6그루 나무 심기'에 참여하시면 몽골 은총의 숲에 6그루의 나무를 심으실 수 있습니다.

3. 맺음의 시간 : 4/13-19, 1주

풍성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시기

4월 13일, 녹색 순례 6주 '풍성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에 동행하는 주'	
본 문	누가복음 22:14-23:56
주 제	참회와 동행 –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연약함
녹색 순례	풍성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도와 금식 가운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 교회의 전통에 따른 고난주간의 일정 가운데 기도와 예배에 참여합니다.

4. 새김의 시간 : 4/20-26, 1주

풍성한 생명을 함께 나눔으로 은총을 깨닫는 시기

4월 20일, 녹색 순례 후 1주 '기쁨과 감사 축제의 주'	
본 문	누가복음 24:1-12
주 제	기쁨과 감사 –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의 기쁨과 감사
녹색 순례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움으로 모두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부활의 은총 가운데 세례에 참여하며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 교회의 전통에 따른 부활 주간의 일정 가운데 기도와 예배에 참여합니다. • 교회 소통 공간에서 녹색 순례 기간의 실천과 다짐을 정리하고, 느낌과 소감을 함께 나눕니다. • 교회에서 진행한 녹색 순례에 대한 평가회를 진행하고, 녹색 순례의 성과와 과제를 담은 '2025년 사순절 녹색 순례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은총의 숲 센터와 공유합니다. • 교회에서 은총의 숲 센터(www.graceforest.org)의 숲 조성과 관련된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환경연구소의 녹색교회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입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부설기관 사단법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창조세계를 온전하게 지키고 돌보기 위해 1982년에 한국교회가 설립한 한국 사회 최초의 환경단체입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부설기관 사단법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생태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과 환경주일 성수, 녹색교회 확대, 환경교육 자료 개발, 생태신학 연구, 생태환경 캠페인 등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한국교회 생태환경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의 시대에서,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교회와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342-01-0028-375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숲 홈페이지 www.greenchrist.org

은총의 숲

은총의 숲 센터에서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한국교회가 창조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은총의 숲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숲 센터에서는 몽골 아르갈란트 지역 100,000평의 은총의 숲 조성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네팔 헤토다 지역에서 씨드볼을 이용한 지역 공동체의 숲 복원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현장을 돌아보고 은총의 숲 조성에 참여하는 생태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은총의 숲 조성과 확장을 위해 '은총의 숲 천사' 후원자 찾기, '몽골 은총의 숲 6그루 나무 심기', '은총의 에너지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로웨이스트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 '네팔 은총의 숲 씨드볼 키트'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숲 후원 계좌 : 농협 301-0009-6346-21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은총의 숲
은총의 숲 홈페이지 www.graceforest.org